

- 지역생활권 운영 및 지역발전 우수사례 조사를 위한 -  
**공 무 국 외 여 행 보 고 서**

## I. 출장개요

### ○ 목 적

- 해외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심층 사례조사를 통해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구체화와 성과 창출에 기여
-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및 지방정부간 협업체계 조사로 지역생활권 추진체계 발전방안 모색
- 관광산업, 문화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확립 및 지역발전 사례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역발전 역량 확충

○ 기 간 : 2015. 12. 9(수) ~ 2015. 12. 18(금)

### ○ 대상국가 및 방문기간

일 시	방문국가	방문기관	방문목적
12.9~12.12 (4일)	미국	포틀랜드 오레곤 메트로, 남캘리포니아 정부연합(SCAG)	지방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 지역발전 계획 공동수립 및 재원부담, 자치단체간 생활인프라 확충 및 시설 공동활용 등
12.13~12.16 (4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문화재관리국, 메리다시 문화국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전략, 지역마케팅 추진전략 및 사례 등

○ 여행자 인적사항 :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김충

## II. 출장내용

### 가. 미국 시애틀 마을만들기 사례 견학

○ 금번 국외연수의 첫 번째 방문도시로 태평양 연안 워싱턴주 중부에 해당하며 '13년기준 총 인구는 652천명으로 아시아와의 무역을 위한 주요 관문중에 하나며 9번째로 큰 항구에 해당함

○ 이곳은 스타벅스가 처음 생긴 곳이며, 주요 경제동력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 보잉, 닌텐도 미국지부, 코스트코 등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굴지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곳이며 이러한 기업으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지고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도시이다

○ 어떻게 보면 산업 및 물류가 중심이 되는 도시로 느껴지지만 1990년 워싱턴주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자연환경 보존 및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성장관리 정책을 수립한 워싱턴 주의 정책에 발빠르게 적응한 선진도시로 유명하다

○ 시애틀 은 1995년 에 이미 기존의 도시구조를 재편성하는 첫걸음을 시작으로 도시형마을 (Urban village)을 만들어 인구 밀도를 높이고 보행자 중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하므로써 요즘 국내에서 고려되고 있는 콤팩트시티의 초기 전형모델로 인식할 수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든다

○ 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관주도의 추진 방식이 아닌 주민의 의견 개진을 위한 공동체조직이 만들어 지고 그곳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도시내의 38개 근린지역계획 (20년단위 기준)을 처음으로 수립하게 되었으며 시애틀시의 도시기본 계획에 주민들이 직접만든 지역계획을 반영하므로 각 근린지역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다

○ 시애틀 시에서는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지원업무만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 서비스센터에 매니저,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활동과 주민참여를 위한 워크숍과 자원봉사팀 등을 운영하고 있어 최근 2013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수립 등의 롤 모델로 생각된다

○ 또한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로 버스와 경전철이 일부 노선을 공유하고, 수상택시도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노면전차, 급행버스, 열차 등이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도심에 다양한 문화 시설이 모여 있는 시애틀센터가 유명하고 이곳에 높이 185m의 스페이스 니들(space needle) 전망대가 있어 이 도시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이 한번쯤은 들러서 도시전경을 관망하는 인프라시설로 이용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관광수입도 짭짤하게 올리고 있으며, 특히 이곳과 시내의 주요 쇼핑가 및 도심지역을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결해 줌으로서 도시교통해소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이러한 시스템으로 구축 되도록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확충하여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나. 미국 포틀랜드 오레건 메트로 방문**

○ 두 번째 방문도시는 오리건주 북서부에 위치한 포틀랜드시로 '13년기준 인구는 609천명이며 장미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시내 워싱턴 파크에 있는 로즈가든에서 6~7월이면 400여종의 장미가 활짝피서 장관을 연출한다고 한다, 또한 5월말에서 6월중순 사이에는 도심 한복판에서 장미축제가 화려하게 개최되기도 하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불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금번 연수기간과는 맞지 않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며, 오리건주 포틀랜드 광역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정부 기관인 메트로를 방문하였는데,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협의회 의원들이 자치정부를 이끄는 미국내 유일한 지방정부 협의체라고 한다

- 포틀랜드는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9년 메트로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토지이용계획수립과 차 위주보다 보행이 우선되는 환경조성에 목적을 둔 교통계획 수립 관리 및 쓰레기 수집·재활용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업무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 메트로에서는 경찰시스템, 상수도, 길조성 등의 권한은 없으며, 쓰레기 수집 및 처리시스템과 쓰레기의 리사이클관리(재활용)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각 가정방문 회수, 쓰레기 줄이기 노력과 이러한 과정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주요 수입원으로는 펀드조성과 주 정부의 지원금, 관광지 동물원 관람료, 컨벤션센터 임대료, 포틀랜드 엑스포전시관 을 활용한 각종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100만명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는 소개가 있었으며, 동물원은 구경만하는 것이 아닌 동물의 종 번식노력과 자연공원·산림의 보전 및 발전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자연환경의 보존이 우수한 이곳으로 입주해 오고 있는 추세라 한다

- 또한 메트로에서는 지역교통관할 시스템 수립과 시의 경계확장 및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1995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래 교통시스템등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도시외곽의 녹지나 오픈스페이스로의 확장개발이 아닌 정해진 구역 내에서(도시성장구역) 성장하는 방식의 플랜을 구축하였으며 기차역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인 2040 교통관리종합시스템(2040 growth concept)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매트로는 시에서 법이 수립되면 집행 및 운영하는 기능과 주법에 따라 정부의 부속 기관으로서 보완기능의 업무영역을 구축(쓰레기수집, 재활용등)하고,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역의 경계를 구분 짓고 조성하는 역할까지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지방공사의 성격과 흡사한 것으로 생각됨.

#### **다. 멕시코 메리다시 관광문화국 방문**

○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기준 인구는 83만명에 이르는 아메리카의 문화수도이면서 마야문명의 발상지로 유명하다

○ 문화제국에서는 문화유적의 전략적 보전 및 국내외 홍보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문화홍보 가이드를 양성하여 대외홍보에 전념 하므로써 관광객 증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대 마야유적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문화재 발굴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자체 보급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메리다의 주요 문화제로는 1988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2007년 세계 불가사의로 지정된 마야유적인 치첸이사가 있으며 연간 2천만명의 관광객이 꾸준히 찾고 있다고 한다

○ 문화제국에서는 문화재를 관람하기 위한 관광객들의 편리한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또는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책과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체류형 관광을 위한 지역내의 네트워크를 개발 중에 있다, 또한 유출된 문화재를 회수하기 위하여 유출된 문화재의 세계분포현황, 개인 소장품파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현재까지 문화재 복원사업은 부진한 상태이며 장애요인으로서는 습도 등 기후조건으로 발굴후 부식 및 풍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발굴된 문화재도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에게 100% 개방을 못한 상태이며 전체의 약10%만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 멕시코는 대체적으로 치안이 불안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멕시코 31개 주 중 유카탄주의 치안상태는 안전한 상태이고, 친절한 시민정서가 유지되어 있으며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에 관광경찰을 배치하여 경찰 기능과 안전·홍보·여행상품 지원과 안내 등을 함께 병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찰기능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 메리다는 문화도시로 매년 10월에 마야관련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축제는 문화를 공유하는 주변국을 초청하여 멕시코 관광청과 함께 축제의 기획에서부터 집행까지 함께 하고 있으며, 축제는 마야의 문화 → 마야의 언어 → 마야의 음악 등을 소재로 매년 내용을 다르게 실시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더욱 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인 것을 관계자 워크숍을 통하여 들었다

#### **라. 멕시코시티 교통국(지속가능한 도시교통상 수상시)**

○ 20년동안 지속 되온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2011년부터 보행자 중심의 친화적 도시설계를 통한 혁신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반승용차관련 정책과 도심 주차문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도시로, 주요교통정책의 75%가 일반승용차 관련정책일 만큼 심각한 교통이 혼잡된 도시로 아직도 교통흐름은 매우 불량한 상태이며 우리 연수단도 연수를 마치고 가까운 공항으로 이동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다행히 약속된 시간에 출국수속을 마칠 수 있었다

o 이 도시의 교통 패턴을 보면 전체인구의 30%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으며 70%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도시전체의 교통흐름 및 시스템구축, 공해문제 해결에 고민하고 있었으며, 4개월 전부터 새로운 교통정책(조직 및 제도)을 수립해서 공교롭게도 우리 연수단이 도착한날 처음으로 집행이 개시되고 있었다

o 교통정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i 교통체증, 매연 등 문제개선 대책, ii 골목길 이면도로의 문제점과 우회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효율적 개선방안, 비만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 iii 2년전 수원시와 서울시를 방문하여 수집한 사례의 적용, 교통카드 1개로 다종의 교통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안, 상세한 교통지도 등의 비치, 스위스 같은 교통시스템 도입으로 교통사망자를 0으로 만드는 것이 정책의 최종 목표라는 담당국장의 소개를 받았다

o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멕시코시티에서는 앞으로 4가지 정책집행 계획을 발표 하였는데 유럽, 미국, 한국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좋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o 2010년까지는 교통정책 시스템이 활발하지 못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본적인 정책을 구사했다면, 2015~2017년까지는 일반공공정책 시스템을 자본을 만들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멕시코시티의 이상적인 모델은 서울시의 교통정책 중 신호체계를 자동시스템과 연동되도록 개선하는데 투자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참고로 멕시코시티는 거주인구가 1,900만이며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2,200만이 움직이는 지구상 최대의 도시이다

○ 참고로 서울시가 중앙차로제를 실시하여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여 교통선진 도시로 불리고 있으나, 그 사례를 연구한 도시가 이곳 멕시코시티를 롤 모델삼아 착안하여 발전시킨 교통정책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으나, 아직은 이 거대 공룡도시의 교통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가. 시애틀

○ 무엇보다 도시가 지속성장 및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를 이끌어 나갈 산업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실감 하였으며, 그러한 기반위에 도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존의 도시구조를 재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년단위 계획목표인 시애틀 도시기본계획에 마을단위 지역계획을 반영한 사례를 견학하는 기회를 맞았다, 이지역은 1995년도에 이미 주민 공동체 조직을 만들고 그곳에서 주민들 스스로 의견을 표출하고 조율하는 등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보행자 중심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 주도 방식이 아닌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가 정착된 사례로 우리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및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 또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도심내의 주요관광지·쇼핑상가·음식코너·문화시설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의 효율적 배치가 절실하며 이러한 자원을 관광객들이 찾기쉽도록 종합관광지도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주요장소에 비치하여 외부 관광객의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것도 지자체가 해야할 중요한 업무중 하나임을 느낌.



## 나. 멕시코 메리다

○ 멕시코는 치안이 불안정한 도시로 알려져 있으나,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메리다 지역은 관광지에 관광경찰을 배치하여 경찰 본연의 기능 외에 안전·홍보·여행상품지원 안내도 함께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찰기능과 다르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 이 도시는 풍부한 고대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연간 2,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이며 이로인한 관광수입에 의존하는 도시로 매년 10월에 마야관련 축제를 개최하는데 일반적인 축제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를 공유하는 주변국을 초청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함께하고 있으며, 축제의 내용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내용이 아니고, 매년 다른 내용으로 발전승화 시켜 나가고 있어 이를 보기 위한 세계의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한다는 소개를 들었으며, 우리시도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된 항구축제를 인근시군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과 스토리 구성을 함에 있어 과거의 고증자료 등 역사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아이টে를 발굴해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 IV. 첨부자료

### 가. 국외 정책연수 추진계획 1부

### 나. 관련사진 및 관광 종합안내 도

---

지역생활권 운영 및 지역발전 우수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 정책연수 추진계획**

---

**2015. 11**

# 지역생활권 운영 및 지역발전 우수사례 조사를 위한 2015년도 국외 정책연수 추진계획

## I 연수목적

-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및 지방정부간 협업체계 조사로 지역생활권 추진체계 발전방안 모색
- 관광산업, 문화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확립 등 지역발전 사례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역발전 역량 확충

## II 연수개요

□ 연수주관 : 한국생산성본부(KPC),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연수일정

- 기 간 : 2015. 12. 9(수) ~ 12. 18(금) (7박10일)
- 장 소 : 미국, 멕시코
- 방문일정

일 시	방문국가	방문기관	방문목적
12.9~12.12 (4일)	미국	포틀랜드 오레곤 메트로, 남캘리포니아 정부연합(SCAG)	지방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 지역발전 계획 공동수립 및 재원부담, 자치단체간 생활인프라 확충 및 시설 공동활용 등
12.13~12.16 (4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문화재관리국, 메리다시 문화국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전략, 지역마케팅 추진전략 및 사례 등

## □ 연수단 구성 및 연수 비용: 24명 내외

- 연수 주관기관(4명) :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자치단체(16명 내외) : 지역행복생활권 담당자, 지역발전사업 포상자
  - 지역생활권 운영체계 점검 우수기관 : 10명 내외(광역/권역별 선정)
  -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포상 기관 : 10명 내외
- 지역위(4명) : 지역협력과장, 정책평가과장, 담당사무관

## □ 연수비용

- 연수비용은 참여 자치단체 국외 공무여비로 부담 원칙
- 인당 연수비용 : 590만원(항공료 340만원 포함/항공이동 7회)
- 주관기관에서 인당 연수비용 100만원 지원  
(참여 자치단체별 납부 연수비는 490만원)
- \* 입금계좌 : 기업은행 684-003586-04-714 / 한국생산성본부
- \* 입금기한 : ~ 12월 4일

## □ 연수내용

- 지역간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약내용 및 중앙정부의 지원 현황 조사
- 지역협력권역 단위의 개발 추진체계, 계획수립 과정 조사
-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위한 지방정부간 행·재정적 부담방안 조사

# 참고 1

## 국외연수 주요일정표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고
12. 9 (수)	인천	시애틀 포틀랜드		18:15 11:05 15:00 19:00	○ 인천국제공항 출발(KE 019) ○ 시애틀 도착 ○ 시애틀 마을만들기 현장견학 ○ 시애틀 -> 포틀랜드	
12.10 (목)	포틀랜드	LA	오레곤 메트로	10:00  20:35	○ 포틀랜드 오레곤 메트로 -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지역발전 전략 및 협력사업, 토지이용 전략 ○ AS498 포틀랜드 -> 로스엔젤레스(22:53)	
12.11 (금)		LA	남부캘리포니아연합 (SCAG)	10:00	○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 - 지방정부간 다층적 협력체 구성 및 정책결정 방법 - 지역협의회의 지역발전전략 및 지원기구 연구	
12.12 (토)	로스엔 젤레스	멕시코 시티		10:00 17:45	○ LA 문화탐방 ○ AM643 LA -> 멕시코시티(23:25)	
12.13 (일)	멕시코 시티	메리다		10:50	○ AM515 멕시코시티 -> 메리다(12:40) ○ 연수결과 정리 및 준비	
12.14 (월)		메리다	메리다시 문화국	10:00  20:40	○ 메리다시 문화국 - 문화수도로 선정되었던 메리다가 도시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든 개발전략 및 예산 지원 등 지역개발관광 산업조사 ○ AM522 메리다 -> 멕시코시티(23:00)	
12.15 (화)	메리다	멕시코 시티	멕시코시티 교통국	10:00  14:00	○ 멕시코시티 교통국 - 멕시코시티의 통합적인 교통네트워크 개발사례 청취 및 질의응답 ○ 멕시코 벽화 박물관 및 거리 견학 - 문화를 통한 도시브랜드 사업	
12.16 (수)	멕시코 시티	LA	멕시코시티 문화재관리국	10:00  19:35 23:40	○ 멕시코시티 문화재관리국 - UNESCO 문화유산도시의 문화재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 AM409 멕시코시티 -> 라스베가스(21:35) ○ KE006 라스베가스 -> 인천	
12.17 (목)		기내숙박			○ 기내숙박	
12.18 (금)		인 천		06:05	○ 인천 도착	

국가별	방문 개요
미국 (4일)	<p>□ 마을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애틀은 도시기본계획에서 38개 마을에 대한 도시마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광범위하게 실시.</li> <li>- 커뮤니티 보전, 경제적 기회, 사회 형평성, 환경보호의 4가지를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마을과를 조직하여 주민과 시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li> <li>- 시정부에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커뮤니티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주민들을 계획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매칭펀드 운영, 녹색의 오픈 스페이스를 활용하여 건강한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정원 프로그램 운영, 풀뿌리 조직 지원을 위한 마을서비스센터 운영 사례 조사</li> </ul>
	<p>□ 오래곤 메트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틀랜드 주변의 25개 도시로 구성되고, 미국에서 유일하게 주민직선으로 메트로 관리자 선출</li> <li>- 포틀랜드 지역의 쓰레기처리, 도시성장지역관리, 공원, 동물원, 컨벤션 센터 관리 등</li> </ul>
	<p>□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남가주 지역은 광역화로 성공한 곳임. SCAG는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체인 COG이며 MPO로서 이 지역의 6개 카운티, 191개 시의 지방정부 대표들로 구성</li> <li>- 정책결정은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역협의회(Regional Council)에서 이루어지고 지역협의회는 기본적으로 6개 카운티와 191개 도시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li> </ul>

국가별	방문 개요
멕시코 (4일)	<p>□ 메리다시 문화국(카니발 담당과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리다시는 America 문화수도 선정 첫해인 2000년에 최초로 문화수도로 선정</li> <li>- 매년 2월에 멕시코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하나인 카니발을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li> </ul>
	<p>□ 멕시코시티 교통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멕시코시티 광역권은 인구 2300만명으로 세계 3위권에 해당되며, 이들 인구의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멕시코시티의 14개 노선의 지하철, 광역버스 노선 등을 기반으로 한 저렴한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li> </ul> <p>□ 멕시코시티 벽화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2년부터 역사와 사회를 주제로 한 멕시코 벽화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 운동은 미술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관철시키는 시도를 하였음</li> <li>- 다양한 도시벽화 작업이 국내에서 도시미관 및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해 시도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창조에 대한 시사점 고찰</li> </ul>
	<p>□ 멕시코시티 문화재관리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19세기의 아즈텍 문명 역사유적과 19~20세기 스페인 건축유산을 기반으로 멕시코시티와 소치밀코 역사지구는 198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li> <li>- 세계 10대 관광도시인 멕시코시티에서 인구급증과 산업화 추세 속에서 문화재 관리실태와 문화재를 기반으로한 관광마케팅 현황 파악</li> </ul>

## □□ 오레곤 메트로

1. Metro 의회를 주민 선거로 구성하는 이유
  - 미국에서 유일하게 선거로 구성하는 Metro가 된 사유
2. Metro와 연방정부-주정부-시와의 관계
3. Metro 재정수입과 지출 현황
4. 오레곤 메트로가 service district를 구성한 방법과 갈등
  - service district 권역 설정 방법
  - 권역 설정 당시 시(市) 정부나 주민 간에 갈등이 없었는지 ?
  - 갈등이 있었다면 갈등을 해소한 방법
5. Metro가 수립한 계획을 집행하는 방법과 집행력 확보 방법
  - 관할 구역 내의 시(市) 정부가 집행하는지, 아니면 metro가 집행하는지 ?
  - 수립한 계획이 법상 기속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6. Metro 기능과 소관 업무를 Metro가 담당하게 된 이유
  - Metro 기능 설정이 주민 요구에 의한 것인지 또는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
  - 주민의 요구였다면 주민의견을 수렴한 방법과 절차
7. Metro가 지역간 협력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필요한 제도적
  - 재정적 개선방안 또는 관련 계획



## □□ 남부캘리포니아연합

1.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의 설립목적과 법적근거
  -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와의 사이에서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의 역할과 업무 범위는?
2.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의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승인하는 기관은?
  - 주요정책 및 계획이 결정되면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고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3.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의 조직 구성과 운영예산에 대한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분담하는지?
4.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 지역내의 자치단체 간의 협의, 상호 교류, 공동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5. 지방정부 간의 협력사업시 예산분담, 사업 추진방법, 조직운영은?
6.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은 타당한 방식인지, 바텀업 방식인지?
  -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취합하고 결정하는지?
7.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넘비사업에 대한 추진방법은?
  - 사례로 설명해 주고 넘비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8.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정부 간의 협력

사업 중에서 주민 삶의 질 개선이나 주민일자리 창출 등에서 성공적인 우수사례에 대해 설명?

- 주민들의 협력과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해 설명?

## □□ 메리다시 문화국

1. 메리다시를 문화수도로 지정하게 된 이유 및 배경은?
2. 메리다시가 문화수도로 지정된 이후 외부 관광객의 증가량은?
3. 메리다시는 축제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새로운 축제 기획 및 운영방법은?
  - 축제에 대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지?
  - 별도 축제 운영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인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지?
4. 수많은 축제를 개최하면서 실패 사례에 대해 설명?
  -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 축제에 대한 별도의 감사는 이루어지는지
5. 수많은 축제 개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마찰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였는지?
6. 카니발 등 축제 개최에 따른 지역상권 및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 비율은?
7. 메리다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어떤 방식으로 보존을 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예산은 메리다시 전체 예산중 몇%인지?

## □□ 멕시코시티 교통국

1. 멕시코시티가 저렴한 교통요금체계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
2. 멕시코시티와 저렴한 교통요금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자치 단체와 협약한 사항이 있는지 ?
3. 2,3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인 멕시코시티가 저렴한 교통요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통보조금 정책은 ?
4. 멕시코시티의 대중교통체계 및 운영방법은 ?
  -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지, 별도로 관리하는 공단 등을 통해 관리 하는지?
  - 저렴한 교통요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수반 될 것 같은데 지원하는 금액은 ?

## □□ 멕시코시티 문화재관리국

1. 멕시코시티 문화재관리국의 주요업무는 ?
2. 멕시코시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는 어떤 것인지 ?
3. 마야문명의 유적지가 멕시코시티에 있는데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 하는지 ?
4. 중요 유적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지 아니면 문화재가 소재해 있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지 ?
5.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야문명의 유적지 등을 관리하는데 중앙정 부의 지원이 있는지 ?

## □□ 수집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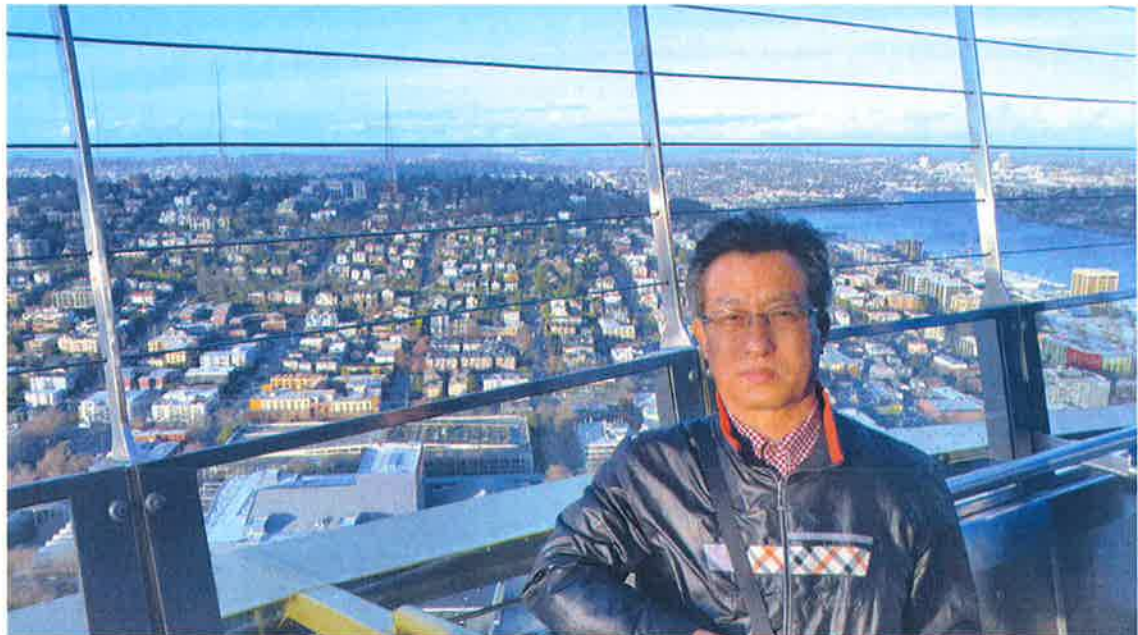
1. 2015 오레곤 메트로 업무계획
2. 오레곤 메트로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자체 법률이나 규정 책자
3. 지역협력 사업의 우수사례
4. 주민갈등을 해소한 주요사업
5.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의 주요정책 및 계획
6.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의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간의 협약서 및 협약내용
7. 지역내의 자치단체 간의 협력사업, 상호교류, 공동문제 해결사례
8. 멕시코시티의 교통정책에 대한 주요업무
9. 멕시코시티가 저렴한 교통요금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주변 자치단체와의 협약내용
10. 멕시코시티의 교통보조금 정책
11. 멕시코시티 문화재관리국의 주요업무
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문화재관리 업무범위 및 역할
13. 연간 문화재 관람료 등 수입 현황○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 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등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 회의 장면 사진 등

## 주요기관방문 사진

미국 시애틀 마을만들기 사례 도시(1)



미국 시애틀 마을만들기 사례 도시(2)



멕시코 메리다주 관광국 워크숍(1)



멕시코 메리다주 관광국 워크숍(2)





## 멕시코시티 교통국 워크숍



